

# 에스더, 이란, 그리고 마지막 때

©아셰르 인터레이터, 2009 년 3 월 8 일

## I. 역사적 진실

에스더 서는 세 가지 단계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슈아 약 500 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모의한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모르드개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에 대해 읽게 됐습니다. 왕이 모르드개를 높이기로 했을 때, 하만이 어찌다가 궁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에나,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르드개는 기스의 아들, 곧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에 2:5). 하만은 아각 족속이었습니다 (에 3:1). 그것은 왕 아각의 후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로부터 500 년 전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아각을 처치하지 않음을 인해 벌하셨습니다. 그 벌은 너무 과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대학살을 꿈꾼 하만의 음모를 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각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 옳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보시는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라도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무한한 은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울이 아각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모르드개가 하만에 대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과 인내)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지라도 말입니다.

## II. 복음의 예표

에스더 서의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의 예표**입니다. 하만은 사탄의 상징이고 모르드개는 예슈아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계 13:8, 벰전 1:20).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사건들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일들입니다 (눅 24:26-27, 행 2:30-31, 벰전 1:10-11).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경우 십자가를 히브리어로 “에쯔”라고 부른 것입니다 (행 5:30, 10:39, 13:29). “에쯔”는 나무, 목재 혹은 목조를 뜻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서에서 “에쯔”는 사형 집행 장소로 일곱 번

등장합니다(예 2:23, 5:14, 6:4, 7:9, 8:7, 9:13, 9:25). “교수대 (gallow)”라고 번역된 채 말입니다.

비류들이 이 목조에 매달려 사형되었습니다. 의로운 영웅은 거의 거기 달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조가 갑자기 패배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의 이삭처럼, 웅덩이 속의 요셉처럼, 물고기 속의 요나처럼, 모르드개도 거의 죽을 뻔 했고 기적적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개는 왕국 차위에 임명되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게 됩니다.

### III. 종말 예언

에스더 서의 세 번째 단계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미리 보인 것입니다.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에스더는 중보하는 교회며 모르드개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고대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때도 유대인의 전멸을 부르짖는 악인이 있었고, 지금도 아흐마디네자드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127 개국의 연방이 있었는데, 현재의 UN 을 떠올리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가장 근접한 성경 히브리어 단어는 “쫄레르”입니다. 하만은 네 번 “쫄레르”라고 표현됩니다 (예 3:10, 8:1, 9:10, 9:24). 하만처럼, 적그리스도도 유대인 (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할 것이며 나라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할 것입니다(계 13, 겔 38-39, 숙 12-14).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에스더 3:6 에 나타나는데, 사탄의 상징이 메시아의 상징에 분을 품는 모습입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만 죽이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친족에게 모두 보복하려 합니다. 반유대주의,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의 영은 모두 근원이 비슷합니다.

### IV. 중보하는 신부

에스더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형입니다(엡 5:23-32, 계 12). 그녀는 왕과 신부로서의 친밀함을 통해 즐거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뿌리는 유다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유대인에 관련된 무서운 환란을 피하려고 하지만 잡히고 맙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예언적 도전은 자신의 운명과 신부로서 누리는 친밀함이라는 특권이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예 4:14, 롬 11:11-15).

목숨을 걸고 유대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부르심에 그녀는 충격에 휩싸이지만, 그 예언적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은혜, 기도와 음식을 인해 재앙이 승리로 변하고 왕국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친밀함을 아는 많은 이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에스더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에 8:17).”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환란 중 복음을 통한 많은 영혼의 추수, 그리고 2) 이스라엘의 언약과 신앙의 유대적 뿌리를 재접목되는 많은 성도들입니다.

## V. 이란의 운명

에스더 서는 또한 이란을 향한 긍정적인 예언적 운명을 제시합니다. 페르시아가 분쟁과 반유대주의의 근원이었던 반면, 승리를 가져온 믿음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이란에 강력한 지하 교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늘어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편이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고레스와 아하수에로는 이슬람보다 1,000 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뿌리는 성경에 있지 이슬람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는 2,500 년이 넘었습니다.

---

**기도 제목:** 총리로 선출된 네타냐후는 에후드 바라크를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대한 위치에 두고 싶어합니다. 바라크의 정당에서는 연정에 가담하는 데에 대한 반대가 굉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네타냐후의 바람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Shaul Byunghyun Go*